

광주복지재단 ‘새판짜기’ 시급

무단 검직·불법 묵인·부당 채용·갑질 등 의혹들 사실로 대표이사·처장·양 본부장 등 서열 1~4위 공석 불가피

광주복지재단이 총체적 부실로 설립 10년만 최대 위기를 맞으면서 대대적인 새판짜기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 감사 결과 본부장급 간부의 무단 검직과 불법 행위 묵인, 고위직 부당채용에다 직위를 이용한 '갑질'까지 대다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사퇴와 계약해지로 서열 1~4위의 공석이 불가피해졌고, 광주시의회도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버리고 있어 속도감 있는 내부 혁신작업이 요구되고 있다.

6일 광주시와 복지재단 등에 따르면 부당 채용과 임대시설 불법 묵인, 간부 갑질 논란 등의 책임을 지고 장현 대표이사와 신모 사무처장이 지난해 12월 말 사퇴했다.

장 대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임기를 3개월 앞두고 대표직에서 불명예 퇴진했고, 신 처장은 채용 과정에서 인사관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나면서 사직했다.

서열 1, 2위인 대표이사와 사무처장이 동시에 공석이 된 가운데 사무처를 이끌 경영관리실장 역시 파견 기간 만료로 시 본청으로 복귀하게 돼 재단 사무처는 팀장급이 대표직을 대행하고 있는 기형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실상 재단 서열 3, 4위인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효령노인복지타운 본부장들 역시 감사 결과 부실 운영과 비위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계약해지 처분을 받은 상태여서 재단과 주요 위탁시설 간 부들이 동시에 빈자리로 남을 공산이 커졌다.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1주일간 광주복지재단을 상대로 한 특정감사 결과, 무단 검직과 갑질 매점과 자판기 운영비리, 비위사실 묵인 등 여러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본부장 2명에 대해 계약해지, 관련자 5명에 대해 훈계조치가 내려졌고, 복지재단은 기관 경고를 받았다.

특히 모 본부장의 경우 재단 취업규칙과 행동강령상 금전적 대가를 받고 외부 강이나 회의참석시 이를 신고토록 돼 있으나 이를 어긴 채 취임 직후인 2016년 8월부터 14개월간 모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며 72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2016년에는 출강요청공문도 없이 신고만 하고 임의대로 출강했고, 2017년에는 이에 출강신청이나 검직 허기도 받지 않은

채 외부강의에 나서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본부장은 또 직원에 대한 힘담 등으로 인격을 무시하고 정신적으로 괴롭힌다든지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직장 내 갑질을 해온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또 다른 본부장은 연매출이 2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빛고을건강타운 내 매점과 자판기가 불법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채 시에 단 한차례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고, 되레 비위사실을 덮기 위해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시의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 문제의 매점 등은 실제 계약당사자가 아닌 엉뚱하게 모 봉사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입차인 따로, 운영자

따로인 사실이 드러나 "명백한 관련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기도 했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 효령노인복지타운,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광주장애인보호작업장 등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중인 광주복지재단은 2009년 설립된 빛고을노인복지재단의 후신으로 2015년 광주복지재단으로 변경됐고, 이듬해 3월 초대 대표로 장현 전 호남대 교수 겸 윤장현 전 시장 정부특보가 취임했다.

광주시 복지공동체 실현과 복지정책 개발을 위해 설립된 재단은 2015년 초대 대표로 내정된 엄기욱 군산대 교수가 반(反) 시국선언 가담,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중도 하차하면서 위기를 맞긴 했지만, 주요 경영진이 한꺼번에 위기를 맞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단 관계자는 "주요 간부들이

공석이어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따라 복지재단 정상화를 위한 새판짜기와 대대적인 혁신 프로세스가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특정감사를 이유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미뤘었던 시의회도 10일개로 예정된 이사회회의의 결과를 지켜본 뒤 행정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2월 임시회 전에 행정조사를 위한 원포인트 의회가 열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

시의회 관계자는 "행정조사특위가 아니라 복지재단 정상화특위를 꾸려야 할 정도로 심각하고 참담하다"며 "긴급토론회 등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단 사무처는 시 사회복지과, 양 타운은 고령화정책과에서 관리감독권을 지니고 있어 이원화된 구조에 대한 협의와 정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은홍 기자



부분일식 관찰중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라인에서 관람객이 천체망원경과 특수안경을 활용해 해의 일부분이 가려지는 부분일식 현상을 바라보고 있다.

조선대 학과 통폐합 등 '학사구조 개편' 내부 진통

조선대학교가 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학과 통폐합 등 학사구조 개편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내부 진통이 예상된다.

6일 조선대에 따르면 대학 혁신위원회는 학사구조 개편을 앞두고 지난 3일에 이어 4일에 단과대학 학장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오는 8일에는 전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혁신위는 현재 85개 학과 중 15개 학과를 통폐합하겠다는 방침으

로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 구체적인 구조조정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통폐합 기준은 학과간 자율경쟁 체제 도입을 통한 학과단위 경쟁력 확보, 대학 특성화분야 육성, 학생 정체성 유지, 교원 신분 및 수업권 보장 등이다.

하지만 교수평의회는 대학 중장기발전계획을 새롭게 수립한 후에 통폐합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추진하는 통폐합 기준이 기존의 중장기발전계획을 토대로 하

고 있으나 지난해 정부의 2주기 대학 평가때 낙제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교수평의회는 대학 특성화 교육과정 수립과 강의 평가 및 개선을 위한 환류시스템 구축, 재정건전성 확보 등이 담긴 중장기발전계획을 다시 수립한 뒤에 구조조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수평의회 소속 교수 30여 명은 대학 중장기발전계획을 만들어 집행부와 혁신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조인호 기자

나주 차량 부품대리점서 불...4800만원 피해

6일 오전 1시20분께 나주시 한 차량 부품대리점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시간10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실내 180㎡와 자동차 부품 등이 타 소방서 추산 48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2층 부부침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순천 도로서 1t 트럭 2대 충돌...2명 사상

5일 오후 5시53분께 순천시 해룡면 한 도로에서 A(54)씨가 운전하는 1t 트럭과 B(58)씨의 트럭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B씨도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무안서 야산 인근 화재...쓰레기 소각 원인

무안의 한 야산 인근 들녘에서 불이 났지만 30여분만에 진화했다.

5일 무안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2분께 무안군 현경면의 한 들녘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이 시작된 곳이 인근의 야산과 인접해 있다는 신고에 따라 소방과 산림당국은 소방차량 등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산쪽으로 진행됐지만 주민들이 동원돼 30여분만에 진화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60대 음주운전으로 차량 5대 잇따라 받아

해남에서 60대가 음주운전 역주행을 하다가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경찰에 붙잡혔다.

해남경찰서는 5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고 차량을 받은 혐의(특기법상 도주차량 등)로 A(68)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께 해남군 문내면 한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면서 B(36)씨의 차량 등 3대를 연속 받던 뒤 구조조치 없이 10km를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 등 3명이 크고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정차해 있던 차량 2대에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적 장애인 감금·폭행·공갈 20대 구속

지적 장애인을 상습 폭행하고 돈을 가로챈 20대가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4일 지적 장애인을 때리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특수상해)로 정모(22)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공범 염모(2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며, 또 다른 공범 4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9일부터 약 한 달간 광주 북구 모 원룸 등지에서 A(23)씨와 B(21)씨를 수차례 때려 다치게하고 휴대전화 개통을 강요한 뒤 퇴짜는 방법 등으로 48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A씨에게 밀지라를 소개시켜주겠다며 접근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적장애 5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A씨를 원룸에 사실상 가둔 뒤 집안일 등을 강요하고 비상식적인 이유로 학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등은 경찰에 "기분이 나쁘거나 말대꾸를 할 경우에 A씨를 마구 때렸다. 옷걸이 등 각종 도구로 폭행했고, 담뱃불로 지지도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B씨를 상대로 330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강요하고 A·B씨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봉해 되관 것으로 밝혀졌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